

# 교육, 교회와 함께 달라진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네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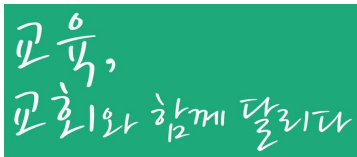
2009년 12월 4일(금) 오후 2시  
명동 청어람 5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Seed School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교육편>



발행일 \_ 2009년 12월 4일  
발행인 \_ 우창록  
편집인 \_ 양세진  
편 집 \_ 조제호, 전선영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교회사회회복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trust@trusti.kr

[www.trusti.kr](http://www.trusti.kr) / [www.trustchurch.net](http://www.trustchurch.net)

# 교육, 교회와 함께 달려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네번째 이야기



2009년 12월 4일(금) 오후 2시  
명동 청어람 5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Seed School



사 회 :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인사말 : **이 장 로**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씨드스쿨 단장)

## ○ 생각나눔(기조발제) *Think Globally*

-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9  
- **장 신 근**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 ○ 실천나눔(사례발표) *Act Loc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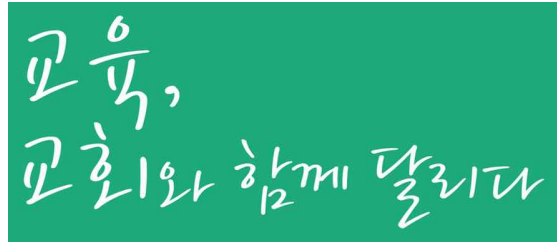
- **에듀투게더 : 분당우리교회와 함께 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프로젝트** 18  
- **김 윤 태** 실장(분당우리교회 복지재단, 에듀투게더 담당)
- **가정과 교회협력을 통한 기독교 대안교육 모색** 30  
- **이 재 현** 목사(지구촌교회 글로벌홈스쿨링아카데미 담당)
-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school in school 프로그램** 50  
- **박 경 현** 소장(한국교육복지연구소, 씨드스쿨 교육이사)

## ○ 실천적 지혜 나누기(토론)

##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교육편〉을 시작하며

2008년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90점 만점에 40.95로 C-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사회복지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이러한 유의미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한국교회에 대해 더 높은 책무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게감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섬김의 방식과 자세에 대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뢰조사가 단순히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민의 출발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회조직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한국사회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교회의 고민을 담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을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한 구성체로서의 ‘사회복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이웃사랑의 방식이 교회중심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이웃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의 관점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기윤실에서는 주제별 전문단체와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 영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럼을 4차례 진행합니다. 매회 진행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지평을 넓히고 교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천적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교회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8일 첫 번째 포럼인 <환경편 : 지구적 교회, 지역환경을 생각한다>와 6월 11일 두 번째 포럼인 <문화편 : 교회와 사회, 문화적 감수성으로 만나다>, 9월 22일 세 번째 포럼인 <대안경제편 : 교회, 마을경제를 돌아보다>에 이어 네 번째 포럼으로 <교육편 : 교육, 교회와 함께 달리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 포럼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교육불평등, 치열한 입시교육 속 진정한 교육철학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고민하고 또 책임져야 할 교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돌아볼 것인지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참가자 분들의 실천적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우창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김동호 이동원 이장규 임성빈 주광순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

**본부장** 조성돈

**씨드스쿨 단장** 이장로 **상임이사** 임성빈







#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 공교육을 중심으로



장신근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 우리사회의 교육 양극화 현상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차원의 양극화 현상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산업체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노동 유연성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거의 없는 빈곤층의 자녀들과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중·상류층 자녀들 사이의 학업성취도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직업이 상위직일수록, 즉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는 더욱 높게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소위 상위권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도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 지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sup>1)</sup>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이러한 현상은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해방 이후 90년대 까지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간의 순환 또는 이동을 가능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정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대학원졸이 87.3%, 대졸이 85.7%, 고졸이 69.7%, 중졸 이하는 44.8%였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대학원졸이 88.4%, 대졸이 87.7%, 고졸이 72.7%, 중졸 이하가 45.5%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별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100만원 미만 5.4만원, 100-200만원 미만 10.8만원, 200-300만원 미만 17.7만원, 300-400만원 미만 24.5만원, 400-500만원 미만 30.6만원, 500-600만원 미만 35.6만원, 600-700 만원 미만 40.2만원, 700만원 이상 47.4만원이다. 최저 소득(100만원)과 최고 소득(700만원 이상)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무려 9배에 달한다.

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리하여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러한 상황은 90년대 이후 점차 힘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교육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교육을 통한 계층 간의 순환 또는 이동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 즉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오늘에 존재하는 한국교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큰 공적인 책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의 공공성의 의미: 공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은 먼저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실존적 차원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을 고립된 존재로 보고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는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개개인을 일대일로 교육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특정 공동체의 가치와 관습과 문화가 전제된 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은 본질상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공공성의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공교육의 경우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추구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다. 공교육은 흔히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교육” 또는 “국민교육제도”로 이해된다. 공교육제도는 교육의 내용, 형식, 실제 활동방향 등에 대해 법적 행정력이 적용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제와 조건정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국립·공립·사립의 제도교육 전체를 공교육으로 간주하게 되었다.<sup>2)</sup> 이러한 의미의 공교육 제도에서 공공성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필수적인 조건이다.

공교육에 있어서 공공성의 문제와 연관하여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공교육의 목표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공교육의 목표는 각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공교육의 목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며 전달하는 능력 신장을 교육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공교육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상호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인재상은 사회와 인류사회에 봉사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인재의 양육을 추구하는 더 높은 차원의 보편적이며 또는 공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

2) 강영혜, “공교육,” 브리태니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2g0368a>

적 요청 또는 상황이 공교육의 목표에서 중요하지만 이것이 공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차원의 공공성과 상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이 왜곡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교육의 목표에 내재된 공공의 선에 대한 공헌이라는 차원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교육을 단지 개개인의 출세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의 공공성과 더불어 교육의 공공성에 연관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보편적인 또는 평등한 교육의 실현**이다. 이것은 개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차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대하여 불리한 여건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공식적인 교육기회를 마련해 준 뒤 생겨나는 학업성적의 격차, 이로 인한 상급학교 진학가능성 여부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은 각 아동이 책임져야 할 일로 간주하는 보수주의적 평등이해와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긍정적인 차별로서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65년에 통과된 “초등·중등교육법(ESEA)”이 그것이다. 이 법의 중심은 제1법안인데 그 기본전제는 빈민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상교육(compensatory education)의 실시이다. 빈민층 가정의 어린이는 취학 전에 환경과 학습동기 면에서 학습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학습부진 현상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저임금의 직업을 선택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제1법안은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빈민층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중산층의 자녀와 비교하여 지능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불리한 환경적 여건들을 가진 빈민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취학 전에 필요한 여건을 미리 충족시켜줌으로써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이들이 학업성취에 있어서 중산층의 자녀들과 동등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헤드스타트(project headstart)는 바로 이러한 보상교육의 정신에 기초해 있다.

---

3) 교육에 있어서 평등에 대한 보수주의적 해석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계층의 형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능주의적 사회관에 입각하여 평등사상을 해석하고 있으며, 단지 공교육 제도 속에서 모든 아동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형태만을 곧, 꼭 같은 입학기회의 부여, 똑같은 교육내용에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똑같은 교육시설의 사용 가능성을 법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교육에서의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다.” 강희천, “기독교 교육에서의 평등,”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1), pp. 177-78.

이 프로젝트는 빈민층 자녀들의 교육을 다른 계층의 아동들 보다 1-3년 일찍(head) 시작(start)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기간 중에 1) 이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여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지적·신체적 발달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2)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분위기에 일찍 접하게 하여 취학 후 학업성적 부진의 약점을 피하게 하며, 또한 3) 후에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빈민층 자녀들을 구별하여 돕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기회균등 또는 긍정적 차별화로서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국가와 학교는 학생들이 이러한 평등의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사회의 교육은 형식적인 차원의 기회 균등만이 존재하며 실제로는 교육의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만 볼 때 2008년도 우리나라의 취학률의 경우, 초등학교는 99.0%, 중학교는 93.2%, 고등학교는 99%, 고등교육기관은 67.2%에 달한다. 또한 진학률의 경우도 초등학교 -> 중학교는 99.9%, 중학교 -> 고등학교는 99.7%, 고등학교 -> 대학교는 83.8%에 육박한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높은 취학률과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경제력에 의하여 자녀들의 교육성취도가 양극화되고 있으며, 사교육은 이러한 양극화의 매개변인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교육 제도는 형식적인 차원의 기회균등은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차원의 교육기회균등은 제대로 성취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효과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또는 평등한 교육의 실현이라는 공교육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교회는 지난 120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사회를 향한 다양한 봉사를 실천 해왔다. 그 가운데 학교를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사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봉사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기독교 학교설립을 통하여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고취시키며

4) 강희천, “기독교교육에서의 평등,” pp. 195-96.

5)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통계연보』. 취학률은 취학적령 학생수 / 취학적령인구수 \* 100, 진학률은 상급학교 진학자수 / 졸업생수 \* 100.

민중을 계몽해 나가는 일에 교회가 적극 참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교육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섬김의 과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자신을 공적인 공동체(public community)로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공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의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오늘의 공교육이 지향하는 목표, 이념, 가치 등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공교육의 공공성 확립에 공헌하여야 한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가는 상황에서 오늘의 공교육은 학생들의 학력신장, 엘리트교육, 수월성 추구, 또는 경제적 세계화 교육 등과 같은 목표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서 경쟁과 기능을 강조하는 이러한 목표 또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하여 공교육의 목표 또는 가치가 너무 협소화됨으로서 이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 또는 가치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성의 회복, 공동체성의 회복, 연대성, 공생, 공존 등과 같은 목표나 가치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공교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개념화 해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월성(excellence)”이라는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추구하는 수월성 교육은 주로 1) 국가경쟁력의 수단, 2) 교육평등성과 대립 되는 개념, 3) 일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으로 간주되고 있다. 수월성에 대한 이처럼 협소한 이해는 주로 국가 경쟁력과 시장 원리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공교육이 지향하는 좁은 의미의 수월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즉, 교회는 수월성에 대한 보다 넓은 차원의 의미들과 동시에 성서적 의미들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이를 재개념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수월성에 대한 다양성과 사회적, 도덕적 차원과 1)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추구하며, 2)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며, 3)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성서적 차원의 수월성과의 대화를 통하여 현재 공교육이 추구하는 수월성 개념이 지닌 지평을 더 확장하여 재개념화 해 나가는 노력에 교회는 적극 참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6)</sup>

6) 강영택, “수월성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와 대학입시 개혁,” 강영택 외,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pp. 24-37.

둘째, 교회는 공교육 제도가 특정 이익 집단이나 세력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도록 지역적이며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시민사회와 더불어 감시하고 견제하는 노력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매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교육이 한 바탕 흥역을 치르게 된다. 공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중요시하는 입장과 차별화 또는 수월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정권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활용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요즘은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폐지에 관한 문제도 많은 경우 발전적인 논의 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목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교회는 공교육제도가 특정한 세력의 이기적 목적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기독교적인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더불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이를 제도적, 법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노력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법적차원의 노력은 개교회적 차원 보다는 교단적인 또는 교회 연합적인 차원의 연대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가 교회의 기득권만을 고수하려는 또 다른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입시위주의 공교육이 공존의 교육으로 변화되도록, 또한 학력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공교육 현상이 무한 경쟁의 전투장이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한 마디로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사회든지 사람 사는 곳이라면 경쟁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득이 경쟁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통한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오늘의 상황은 결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이러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여건을 구비해 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에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즉, 학업성취도의 경쟁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진 학교들에 대해서도 차별하거나 도태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상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성천은 이를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긍정적 차별화로서의 평등”에 기초하여 우리의 공교육이 무한 경쟁의 교육에서 공존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한경쟁 입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학력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학력과 이에 기초한 인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의식 개혁과 제도 개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과열 입시경쟁의 뿌리와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입시 출세주의, 입시 가족주의, 입시 지상주의 그리고 입시 세속주의”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의식개혁이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하여 먼저 교회내의 회중을 대상으로 입시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입시제도와 왜곡된 학력주의에 대한 다양한 각도(특히 사회과학과의 대화를 통하여)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연 현행 입시제도가 가져올 장·단기적인 차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내의 세미나, 특강, 성경공부, 설교 등과 같은 각종 교육기회와 시민사회 단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회중들에게 공존, 공생, 다양성 등의 가치에 기초한 입시제도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에게 공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성서적·신학적 기초 - 특히 공공신학적 관점과 같은 - 를 가르치고 동시에 입시제도의 개혁을 위한 기독교부모 운동, 기독교사 운동, 시민단체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교인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격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인적, 물적 차원의 지원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는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오늘의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들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연대를 통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교회는 공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개혁을 위한 구체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하여 현재의 공교육이 지닌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기독교 대안 학교가 또 다른 엘리트 입시교육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박상진, “입시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강영택 외,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p. 51.

8) 이종태는 일반교육에 있어서 대안학교의 출현 배경을 근대주의적 교육의 한계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즉, 1) 대량생산 체제에 맞는 획일적인 방식, 2) 전지구적 생태 위기로 나타나는 근대적 합리성의 한계, 3) 근대적 개인주의의 한계, 4) 과학적 합리성과 가시적 세계만을 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영성과 초월성의 상실 등이다. 이에 대하여 대안학교는 1) 자율성과 다양성, 2) 자연친화적이며 생태적 특성, 3) 협동적이며 공동체적 특성, 4) 초월과 영성 등을 강조한다. 이종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서울: 도서출판 민들레, 2001), pp. 40-47.

대안학교와 더불어 오늘의 공교육을 개혁해 나가는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는 미국의 Teach For America(TFA)에서 얻을 수 있다. TFA는 웬디 콕(Wendy Kopp)이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학부 졸업생에 의하여 설립된 일종의 공교육 개혁을 위한 비영리 교육단체이다.<sup>9)</sup> 이 단체는 우수한 대학졸업생들 가운데서 자원교사를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교육적으로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의 공교육 현장에 파송하는 단체이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인생의 2년을 떼어 저소득 지역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 TFA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약 2만명의 우수한 대학교 졸업생들을 소외된 지역에 교사로 파송하여 공교육 현장에 새로운 열정과 소명을 불어넣음으로서 미국 공교육 개혁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sup>10)</sup> 비록 기독교단체는 아니지만 공교육 현장의 개혁을 위한 TFA의 비전, 열정, 그리고 전략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공교육을 개혁하기 위하여 소외 계층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멘토링과 튜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씨드스쿨”(seed school)이 TFA와 상응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씨드스쿨은 교회가 공교육 개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sup>11)</sup> 아직 초기 단계인 관계로 몇 가지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대교단은 지역교회가 공교육 현장에 참여하여 공교육에 에너지와 열정, 소명을 불어넣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학교(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자신들이 가진 인적·물적자원을 통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멘토링과 튜터링을 통하여 섬겨나감으로써 공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것이다.

9) Wendy Kopp, 최유강 역, 『열혈교사 도전기』 (서울: 에이지 21, 2009).


10) 현재 하버드와 프린스턴과 같은 유명 대학 졸업생의 10%가 TFA의 교사로 응모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TFA가 대학생이 취업하고 싶은 이상적인 사회적 기업 순위 10위에 올랐다.

11)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씨드스쿨”은 2009년 1월에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한국리더십학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빛누리재단 등의 전문기관들의 협력으로 결성된 비영리공익단체인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사업명칭이다.



## 나가는 말: 구원이 필요한 공교육

오늘 우리사회의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 회복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입시문제에서 수렴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공교육은 이제 치유의 단계를 지나 그야말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대학교(大學敎)”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인구가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공교육과 대학교의 신자들을 구원해 내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비 그리스도인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동시에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자녀교육의 목적, 성공 및 출세 요인, 희망교육 수준, 자녀의 진로 결정 등 교육적 가치관에서 일반 학부모들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교육의 목적에서 신앙적 가치를 더 높이 두는 점과 희망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일반 학부모 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을 이해함에 있어서 세속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2)</sup>

여기에 바로 우리가 공교육을 구원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뿐 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와 연대를 통하여 이러한 공교육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 차원의 타자들과 함께 연대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들과 더불어 공교육 개혁에 적극 참여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자연의 탄식 소리와 더불어 오늘날 공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에 공감의 자세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12) 김창환, “한국교회에서의 입시이해,” 박상진 외,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서울: 에영커뮤니케이션, 2008), pp. 154-55.



실천나눔(사례발표) Act Locally ①

# 에듀투게더

분당우리교회와 함께 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프로젝트



김 운 태 실장(분당우리교회 복지재단, 에듀투게더 담당)



## 분당우리교회 소개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 분당우리교회 목회철학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분당우리교회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과 그들이 처한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이 찬 수 담임목사 -



### 분당우리교회 4대 비전(Vision)

1.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2.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3.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
4.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육양극화 해소를 교육지원 사업

## '에듀 투게더 프로젝트'

"에듀 투게더(Edu-Together)" 프로젝트는

빈곤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지원을 통해

꿈과 용기를 주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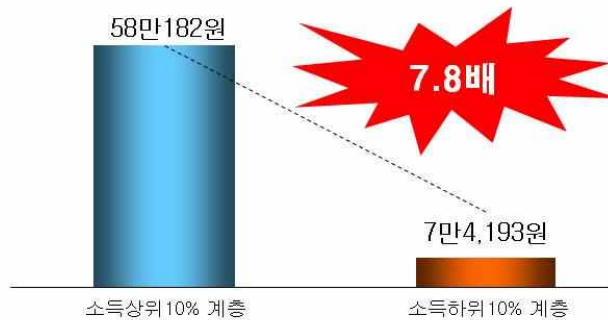
분당우리교회 성도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9월 가을 특별새벽 부흥회 광고 -

## 에듀투게더 시작 - 1. 사회적 문제

### 교육비 격차 무려 7.8배 심각 소득별 교육비 격차 고착화 가난 대물림 현상 심화우려

- 소득계층별 월 교육비 격차(2003~2008) -



2008-09-22 국민일보 류장훈 기자

-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봉사 희망
- 성도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욕구 증대
- 성도들의 자원봉사 활동처 필요
  - 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필요
- 전문봉사자들에 대한 특화된 봉사프로그램 필요

## 에듀 투게더(Edu-Together) 프로젝트

성남지역 빈곤가정 청소년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 '에듀 투게더 프로젝트'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계층의 교육양극화 심화

- 공교육 붕괴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임(사교 시장 규모 2003년 18조4천억원)
- 교육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기회단절 (소득상위 10%와 하위 10%계층 교육비 격차 7.8배)
- 교육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교육지원 필요



#### 교회의 사회적 책임 필요

- 지역 문제에 대한 민간의 참여증대
- 사회 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점차적으로 증대 추세
- 지역사회가 교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 대한 욕구 증가
- 적극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참여 및 구제(지역) 실천
- 본 사업을 통해 교회복지사업 확대 및 건강한 교회로써의 모델 제시



## 에듀투게더 의미(Meaning)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에듀투게더”는 “Education(교육)”과  
“Together (함께)”라는 단어를 접합한 것으로,  
빈곤 가정의 청소년 교육문제에 분당우리교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뜻으로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하는 장기적  
인 프로젝트입니다.

## 에듀투게더 로고(Logo)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 에듀투게더 로고는

어린 청소년들이 에듀투게더 프로젝트를 통해 꿈과 비전을 이루고  
이 시대에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교회와 지역사회 기관연계(네트워크 형성)-

분당우리교회

World Vision  
성남 종합사회복지관

- 예산지원
- 전문학습 봉사자 지원
- 전문교육커리큘럼 개발

전문학습봉사자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대학생부터 40-50대 주부, 직장인까지 교사, 과외교사, 학생지도 경력이 풍부한 실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EDU|together

- 프로그램 개발 및 담당
- 학생선발 및 관리
- 학습공간 제공

(하드웨어 및 대상자 관리)

저소득 가정 청소년 중 공부에 욕구가 있는  
저소득가정 청소년 60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편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 에듀투게더 사업내용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 1. 학습수행 능력 향상

- 정규반 수업진행(영어, 수학 집중식 교육)
  - 일 시 : High class(월, 수 18:00~21:00), Low class(화, 목 18:00~21:00)
- 특강반 수업진행 : 매주 금, 토, 수준별 단과반 운영(3개반)
  - 영어 리스닝(금 19:00~21:00), 수학 집중반(금 19:00~21:00),
  - 영어 리딩(토 14:00~16:00)
- 영어회화반 수업진행 : 금, 토(18:00~21:00) / 수준별 6개 calss 운영
- 장학금지급
- 기타 학습환경개선, 저녁간식 지원, 참고 교재지원

### 2. 올바른 가치관 확립

- 멘토링 프로그램, 비전캠프, 문화활동, 집단활동, 생일파티 등

### 3. 교육지원체계 마련

강사교육, 월례회(평가회), 멘토교육, 부모교육, 교사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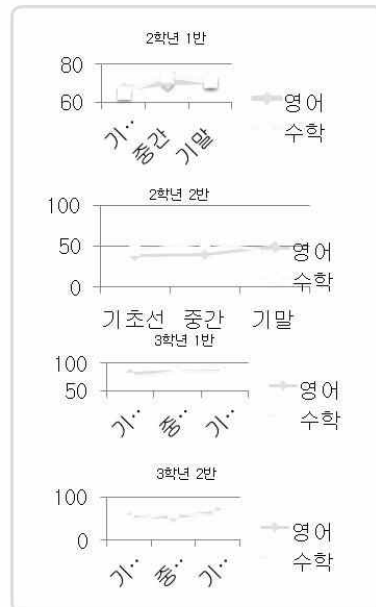
## 에듀투게더 성과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 1. 성적향상

성적 사전, 사후 비교가 가능한 2, 3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성적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성적향상 결과가 나타남.

- 2학년은 영어평균점수가 5점, 수학평균점수가 6점이 올랐으며 3학년은 영어 평균점수가 5점, 수학은 13점이 올랐음.
- 특히 영어, 수학 성적이 50점대 에서 100점으로 오른 학생, 전교 30~40등 에서 전교1등으로 오른 학생 등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에듀투게더 성과

## 2. 공부습관 형성

부족한 학습에 대한 보충 및 지도를 통해 공부에 대한 흥미와 습관이 형성

## 3. 자신감 고취

학습습관이 형성되고 성적이 향상됨에 따라 학교적응력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형성

## 4. 건전한 정서함양

비전캠프, 비전트립 등을 통해 건전한 자아상 및 비전 형성

## 5. 저변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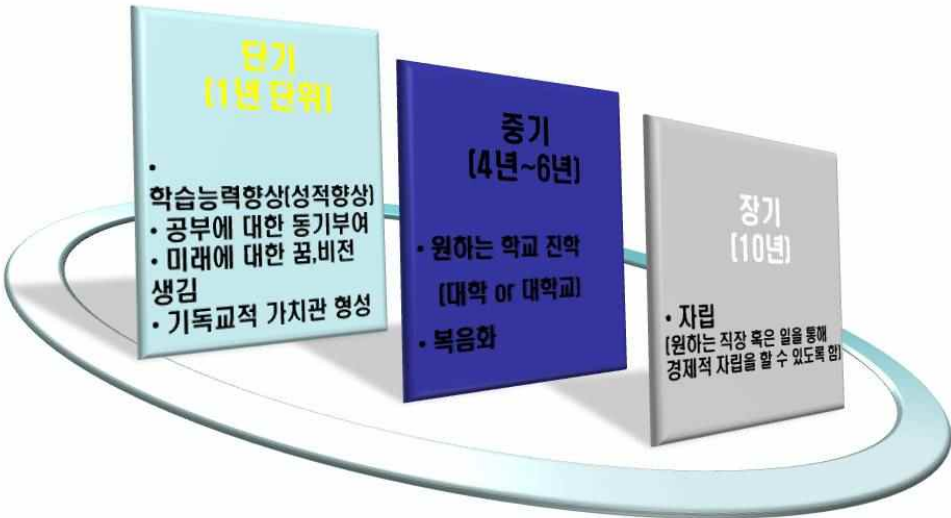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에듀투게더 사업 파트너십



## 에듀투게더 향후 계획

분당우치교회  
BOONDANG WOORI CHURCH



## 에듀투게더 월드비전과 지원협력

분당우치교회  
BOONDANG WOORI CHURCH



## 에듀투게더 감사예배 및 헌판식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 에듀투게더 헌판전달

에듀투게더 봉사자 기념촬영 ▶



## 에듀투게더 전문학습봉사 활동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 에듀투게더 봉사자 시강

에듀투게더 교사회의 ▶





## 에듀투게더 청소년 학습활동

보단강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 에듀투게더 청소년 정서함양 활동

보단강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집단활동



생일파티



에버랜드로 오 해피데이 에듀투게더



에듀투게더 비전캠프



◀ 분당우리교회 다락방 및 봉사부서  
청소년 격려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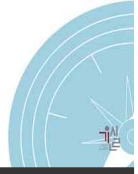
분당우리교회 꿈자람 도서관 지원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나눔(사려야표) Act Locally ②

# 가정과 교회협력을 통한 기독교 대안교육 모색



이재현 목사(지구촌교회 글로벌홈스쿨링아카데미 담당)





# 목차

1. 사역배경
2. 주요사역
3. 주요인물
4. 철학비전사명
5. 객관적진략
6. 역삼가적
7. 사역시스템
8. 협력모임
9. 사역미래



## 1. 사역배경

- 크리스천 홈스쿨링이란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기초하여 자녀를 각 가정에 맞게 양육하며 가족이 함께 제자화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 가정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홈스쿨을 기쁨부으셔서 그리스도인 부모를 부르르고 계시며, 홈스쿨을 통하여 가정회복 운동을 부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에 지구촌교회는 기존의 홈스쿨링 아카데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2. 주요사역

교회와 기관으로서 성경적 대안교육의 역할모델

홈스쿨링 사역의 통합 가정회복운동

홈스쿨링의 성경적 이론 정리 및 보급

대안교육 및 홈스쿨링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부모훈련과 자녀훈련을 통한 영성 및 서포터
-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그리스도 중심의 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 홈스쿨링 가족들의 공동체성과 성경적 리더십 개발을 위한 협력모임(CO-OP) 운영
- 각종 홈스쿨링 관련 특강, 세미나, 워크숍 및 캠프 지원 및 개최



## 3. 주요 연혁 2006

- 2006년 7월. 지구촌 홈스쿨 네트워크 설립
- 2006년 7월. 제1회 홈스쿨 세미나(강사: 티모티 펜트, 에릭 윈로, 브레드등)
- 2006년 8 ~ 9월. 부모훈련(성품훈련) 세미나(강사: 브레드)
- 2006년 9월. 협력 모임(CO-OP) 운영(2개, 강사: 티모티 펜트 가정)
- 2006년 11 ~ 2007년 2월. 성품훈련학교(강사: 티모티 펜트 가정)
- 2006년 12월. 제1회 홈스쿨의 밤





### 3. 주요 연혁 2007

- 2007년 1월. 지구촌 홈스쿨 네트워크
- 2007년 3월. 협력 모임(CO-OP) 운영(4개 모임)
- 2007년 8월. 제2회 홈스쿨 세미나(강사: 늬웨이크 필드)
- 2007년 9월. 협력 모임(CO-OP) 운영(4개, 강사: 티모티 펜트 가정)
- 2007년 11 ~ 2007년 12월. 성품훈련학교(강사: 티모티 펜트 가정)
- 2007년 12월. 제2회 홈스쿨의 밤



### 3. 주요 연혁 2008

- 2008년 1월.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출범
- 2008년 1월. 제1회 등록 설명회(강사: 브레드)
- 2008년 2월. 성품훈련학교(강사: 티모티 펜트 가정)
- 2008년 3월. 협력 모임(CO-OP) 운영(4개, 강사: 티모티 펜트 가정, 랜디 가정)
- 2008년 4~5월. 성품훈련학교(강사: 랜디 가정)
- 2008년 7월. 제3회 홈스쿨 세미나 및 제2회 등록 설명회(강사: 랜디 가정, 윌링 가정)
- 2008년 9월. 협력 모임(CO-OP) 운영(4개, 강사: 이재한)
- 2008년 9월. Biblical Insight for Homeschools 발간(편저: 이재한)
- 2008년 12월. 제3회 홈스쿨의 밤



### 3. 주요 연혁 2009

- 2009년 1월 제3회 등록 설명회 (강사: 램&비버리 브래들리)
- 크로스 커리큘럼 제 1권 성경과 고대 이야기, Unit 1 '창조와 타락 이야기' 발간, (편저: 이재현)
- 2009년 3월 크로스 커리큘럼 Unit 2 '족장들과 출애굽 이야기' 발간
- 2009년 4월 크로스 커리큘럼 Unit 3 '전쟁과 세 왕 이야기' 발간
- 2009년 5월 크로스 커리큘럼 Unit 4 '분열과 재건 이야기' 발간
- 2009년 6월 제 4회 홈스쿨링 세미나 (IBLP 협력, 강사: 진 하인즈, 팀 라벤더스키)
- 2009년 8월 크로스 커리큘럼 Unit 5 '구약과 신약 중간 이야기' 발간
- 2009년 9월 크로스 커리큘럼 Unit 6 '복음서와 예수 이야기' 발간
- 2009년 10월 크로스 커리큘럼 Unit 7 '초대교회와 성령 이야기' 발간
- 2009년 11월 크로스 커리큘럼 Unit 8 '초대교부들과 박해 이야기' 발간



### 4. 철학 비전 사명

1) 우리는 모든 교육과정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서이자 자녀교육의 분명한 기준은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골2:3, 딤후 3:16-17)





## 4. 철학 비전 사명

2)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한 첫 번째 공동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창 12:7~8, 창 1:27)



## 4. 철학 비전 사명

3) 우리는 가정이 인류 최초의 학교이자

가장 기초적인 학습 장소이며

학교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 4:9, 시 127:3-5, 살전 2:11-12)



## 4. 철학 비전 사명

4) 우리는 하나님께서  
홈스쿨을 기쁨 부으셔서  
그리스도인 부모를 부르셨으며,  
홈스쿨링이 영성·성품·학문성·  
사회성·체력등 모든 면에서  
최선의 대안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사 54:13 ; 렘 32:39~41 ; 신 6:6~9 ; 잠 22:6 )



## 4. 철학 비전 사명

5)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제자 훈련시켜야 할  
책임과 전인격적으로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본성적·성경적·복음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잠 29:17 ; 22: 6 ; 엡 6:1~4)





## 4. 철학 비전 사명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안교육인  
홈스쿨링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교육의 복을 추구하며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가 되고자 합니다



## 4. 철학 비전 사명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의 부모와 자녀들은  
홈스쿨링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에  
성경적 가정회복의 모델을 제시하고  
은 가족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통합하여 겸비한  
균형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 5. 실천전략

1) 우리는 우선적으로  
부모훈련과 자녀훈련을 통하여

은 가족이 가정예배, 말씀묵상, 성경암송, 기도,  
찬양의  
삶을 사는 영성 있는 가정이 되도록 돕고자 합니  
다.



## 5. 실천전략

2) 우리는 홈스쿨링 교육의 핵심은  
성품을 개발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이라 믿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성품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 5. 실천전략

3) 우리는 세속적 세계관에 기초한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지양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그리스도 중심의 통합교육 커리큘럼을 지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5. 실천전략

4) 우리는 홈스쿨링 가족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창의력,  
논리력, 수사학적 능력 향상을 위해

고전교육과 샬롯 메이슨 교수법 등에 기초한  
'기독교 통합교육 방법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5. 실천전략

5) 우리는 홈스쿨링 가족의  
공동체 경험, 사회성 향상,  
학문의 탁월성, 성경적 리더십 개발을 위한  
협력모임(CO-OP)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6. 핵심가치 Beyond Education

Pursuing  
God

- 하나님의 추구하는 홈스쿨링 가정은 뿌리 깊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Modeling  
Integrity

-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홈스쿨링 가정은 섬기는 리더십의 본이 됩니다.

Discoverin  
g Wisdom

-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홈스쿨링 가정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7.사역시스템



## 8. 협력모임 (CO-OP)

홈스쿨하는 가정들이 모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자녀들이 영성훈련. 성품훈련.  
다양한 통합 학습활동.  
공동체 및 사회성을 경험하며  
서로 유의한 정보를 나누는 지원 모임





**GHSA**  
Global Homeschooling Academy

## 화요코압

일	시간	부모	내용	학생	내용	
화 요 일	1	9:50 - 10:40		홈스쿨 가족 예배		
	2	10:40 - 12:30		크로스 커리큘럼 통합교육 - 단계별 진행		
	식사	12:30 - 1:30		점심식사		
	3	1:30 - 2:30	부모 교육 및 부모 나눔	홈스쿨관련 부모훈련	자녀 프로그램	성품, 독서 훈련등
	4	2:30 - 3:30		3:30 - 5:30	홈미준	오케스트라

**GHSA**  
Global Homeschooling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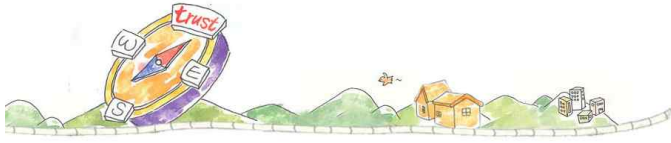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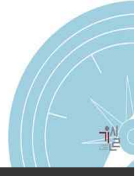


Memo



실천나눔(사려야표) Act Locally ③

#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School in School 프로그램



박 경 현 소장(한국교육복지연구소, 씨드스쿨 교육이사)

대한민국교육봉사단

## Seed School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과거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미래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씨드스쿨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얼마든지 그 꿈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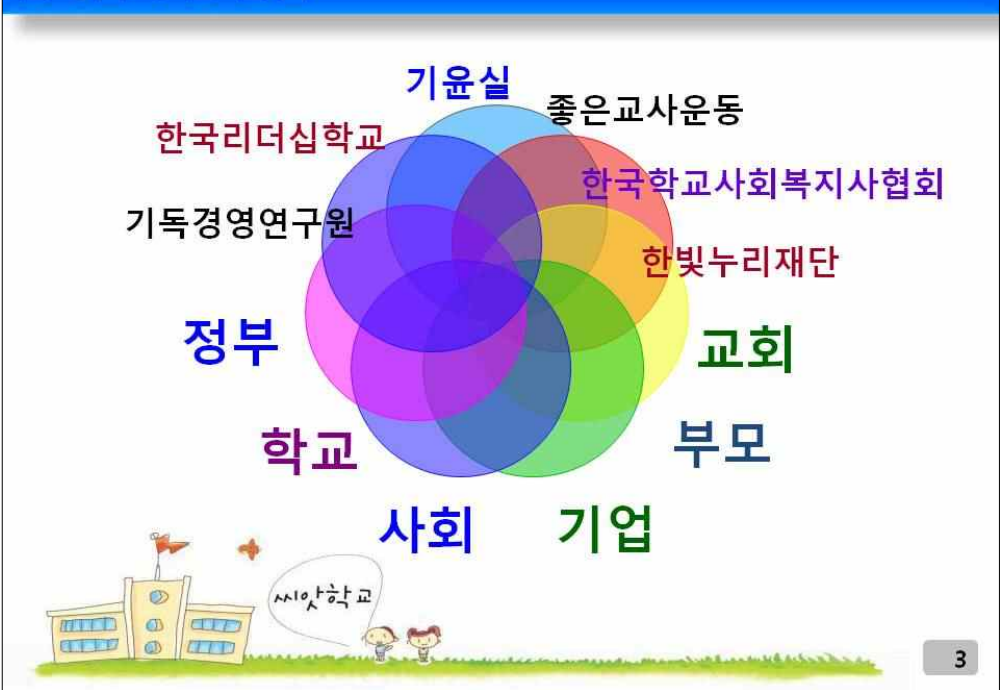
-씨드스쿨선언문-

2009.12. 박경현(교육복지연구소 소장, 씨드스쿨 교육이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17번지 세대빌딩 401호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seed@seedschool.kr  
[www.seedschool.kr](http://www.seedschool.kr)



협력을 통한 섬김



# Seed School 이란?

**핵심가치:**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

**나눔**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룹니다.

**동행**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전인적 동행을 이룹니다.

**변화** 나눔과 동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꽃피웁니다.

## 존재이유

### 1. 복지사각지대 존재: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역전히 다수

### 2.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필요: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양적으로는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높은 수준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

### 3. 여전히 중요한 사회투자:

범죄예방, 사회복지비용 절감, 세금납부 증가, 질 높은 노동력 증가 등 사회적 투자효과



이 프로그램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백성민(학생)  
씨앗학교



## 주요 사업

### 사업 1. School in school 사업

- 학교 안의 학교(School in school)로 방과후 저녁시간에 운영
- 정체성 발견, 재능개발, 학습지원을 위한 커리큘럼 운영

### 사업 2. 자기성장 전문 교사아카데미

- 학교,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사 봉사 전문교육

### 사업 3.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개발

- Seed School 및 기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
- 전국에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보급



씨앗학교 대과교에 가려면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다.  
지금이든 환경이 어려우면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고운(교사)-



## Seed School의 구성원

씨드스쿨은 기대감으로 참여하는 학생과 헌신으로 참여하는 교사, 그리고 열정으로 참여하는 스태프의 3박자가 시너지와 감동을 만들어내는 동행의 공동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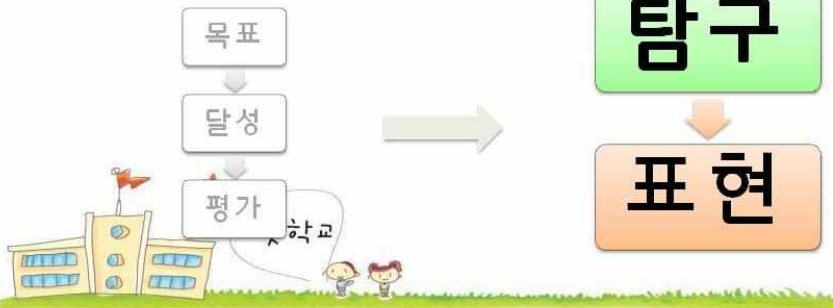


## Seed School의 배움 철학

주제 · 탐구 · 표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배움의 철학

목표 · 달성 · 평가의 배움 철학은 대량 생산의 공장 작업 프로세스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시킨 전근대적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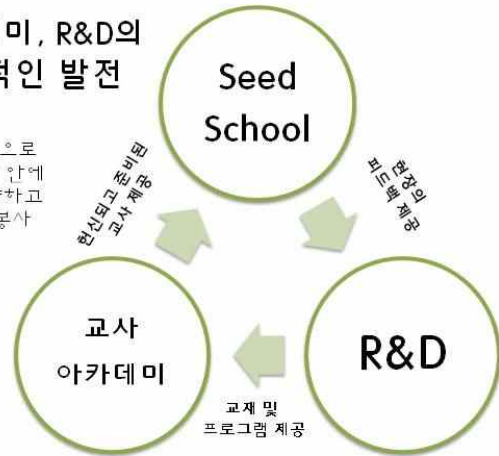
씨드스쿨은 교육과정에 배움의 개성과 공동체성에 기초한 주제 · 탐구 · 표현의 배움 철학을 적용시켜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적이고 협동적인 탐구를 통해 학습을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했다.



# Seed School의 사업 지향

## SeedSchool 현장과 교사아카데미, R&D의 "선순환 구조" 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SeedSchool 기수가 거듭되는 것만으로도 자족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향후 5년 안에 전국 멘토링 사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공유하고 제공함으로써 교육봉사 운동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씨앗학교

지금처럼만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생성호(학생)-

## 프로그램의 차별점

### 1. 아이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 After after school로, 방과후 학교 이후 돌봄이 필요한 저녁시간에 운영

### 2. 체계적인 교사교육과 교재가 있는 프로그램

- 교사아카데미와 R&D를 통하여 높은 질의 프로그램 제공 가능

### 3.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동행' 의 프로그램

- 교사도 학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프로그램을 운영



씨앗학교

교사 하면 돈 얼마 받아요? 라는 삼천이의 질문에 돈을 받았다고 했더니 돈도 안 주는데 이걸 왜 하시는 받을까였다. -권장훈(교사)-



## Seed School 브랜드화 전략

### 1. 전문 교사 교육 프로그램

: 총40시간 교육

전문 멘토링&코칭, 중학생 이해, 리더십개발 등 훈련



### 2. 커리큘럼 매뉴얼 및 학생 워크북 제작 및 보급

: 전국에 확산,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 보급



www.hopsond.kr

www.hopsond.kr

10

## Seed School 사업 기대 효과

#### 효과. 학생:

정체성 발견, 재능개발, 학습능력증진을 통해 자기 주도성과 역량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 효과. 교사:

봉사의 실천으로 성취감 느낌. 사회적 인식과 이해 증진, 사회적 리더십과 기업시민정신 함양.

#### 효과. 학교: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 효과. 기업:

기업 이미지 제고, 간접적인 기업투자.

#### 효과. 사회:

나눔과 동행의 교육봉사운동 확산.

#### 효과. 교회: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신뢰회복 가능.



11



## 1. 교사양성을 위한 워크숍과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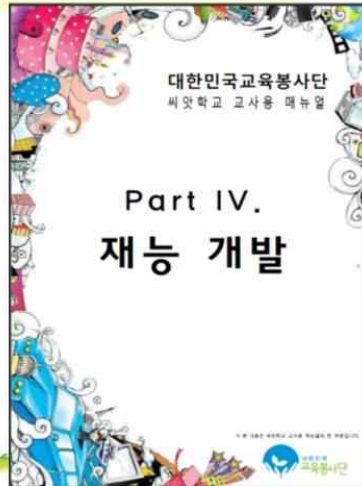


※ 1기 교사아카데미 수료자 42명  
2009 씨드스쿨 교사 파견 36명



## 2. 씨앗학교 커리큘럼 개발

- 현장에서 검증된 멘토링과 튜터링 프로그램 도입
- 학생들 상태와 욕구에 맞게 활용가능한 모듈화된 커리큘럼 제공



## 3. 교사용/학생용 워크북 제작 배부



## 4. 운영본부 Staff 진과 전문위원회의 지원

- 운영본부의 staff 들이 현장에 밀착한 프로그램 지원
- 다분야 전문가들의 관심과 조언과 수퍼비전
-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와 활용
- 학교(교사)와의 유대와 협력





**Seed School** 은 나에게 ...

갈매는 실례는 많았고 기고 올 때는 따뜻한 맘 갖고 오는 곳 - 이현

일주일의 베풀어! - 최한나

백미한 버터버터! - 이종영

습기진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 - 정승희

겨울을 버드스를 때문에 살아요 - 권운진

따뜻한 관심과 열정이 승리는 즐거운 교육 - 임재광

내 삶에 처음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선물

**다음 세대의 희망씨앗을 심어주세요!**

사이사학교

#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2009년 일정

## 1차 포럼 : <환경 : 지구적 교회, 지역환경을 생각한다>

- 일시/장소 : 2009년 5월 8일(금) 오후3시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사회 :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 생각나눔 Think Globally
  -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 : 송준인 목사(청량교회, 총신대학교 석좌교수)
  - 생태문제, 교회의 책임 : 박영신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녹색연합 상임대표)
- 실천나눔 Act Locally
  - 교회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제안 : 손석일 전도사(높은뜻정의교회, 환경공학 박사)
  - 친환경 소비, 먹을 거리와 생활재를 중심으로 : 김재일 이사장(예장생협, 연평교회 목사)
  - 기후변화 대응 교회실천 및 녹색교회 운동 : 유미호 정책실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 2차 포럼 : <문화 : 교회와 사회, 문화적 감수성으로 만나다>

- 일시/장소 : 2009년 6월 11일(목) 오후7시 / 명동 청어람 3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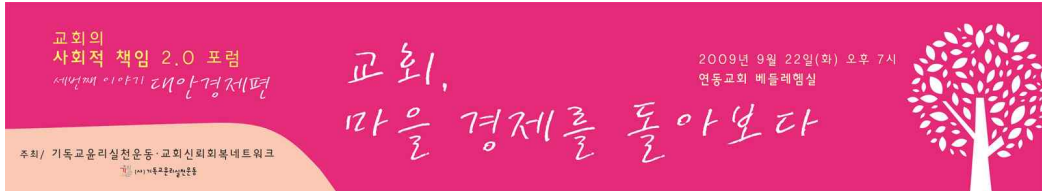


- 사회 :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 생각나눔 Think Globally
  - 웹 2.0 시대와 문화선교 :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외문화, 문화선교연구원장, 기윤실 공동대표)
- 실천나눔 Act Locally
  - 아름다운 상상 '세상에 행복을 주는 교회' : 최은호 목사(예장통합 문화법인 사무국장)
  - 오래된 이야기를 새롭게 하소서! : 신동주 PD(CBS TV 제작부)
  - 지역사회와 문화로 소통하는 파구스스토리 : 박상규 목사(문화 네트워커, 분당만나교회 문화사역담당)
  - 크리스천, 대중문화 홍수 속 래프팅을 타다 : 박준용 기획자(청어람 문예아카데미, 한양대 강사)



### 3차 포럼 : <대안경제 : 교회, 마을 경제를 돌아보다>

- 일시/장소 : 2009년 9월 22일(화) 오후7시 / 연동교회 2층 베들레헴실



- 사회 :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 생각나눔 Think Globally
  - 교회의 사회적책임과 공동체 자본주의 :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 새로운 나눔의 시작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 김범석 사무총장(열매나눔재단)
- 실천나눔 Act Locally
  - 사역적 기업, 커피밀 : 윤선주 목사(디딤돌교회, 커피밀 대표)
  - 교회와 함께 하는 행복한 나눔 : 조병준 팀장(행복한나눔 매장전략팀)

### 4차 포럼 : <교육 : 교육, 교회와 함께 달리다>

- 일시/장소 : 2009년 12월 4일(금) 오후2시 / 명동 청어람 5실



- 사회 :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 생각나눔(기조발제) Think Globally
  -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 장신근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 실천나눔(사례발표) Act Locally
  - 에듀투게더, 분당우리교회와 함께 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프로젝트  
: 김윤태 실장(분당우리교회 복지재단, 에듀투게더 담당)
  - 가정과 교회협력을 통한 기독교 대한교육 모색 : 이재현 목사(지구촌교회 글로벌홈스쿨링아카데미 담당)
  - 교회와 함께 하는 행복한 나눔 : 박경현 소장(한국교육복지연구소, 씨드스쿨 교육이사)

School in school

# Seed School

“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과거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미래가 불행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씨드스쿨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꿈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SeedSchool은 나눔과 동행을 통해 다음세대 리더인 교사와 학생들의 변화를 돕는 교육봉사 운동입니다.

## 동행 공동체 Seed School

SeedSchool은 기대감으로 참여하는 학생과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교사,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현장스텝의 3박자가 어우러져 감동을 만들어내는 동행 공동체입니다.



## 주요 사업

### ● School in school 사업

: 방과후 저녁시간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학교 안의 학교(School in school)로 청소년에게 대학생 봉사자들이 1:1로 전인적 돌봄과 맞춤 학습을 지원합니다.

### ● 자기성장 전문 교사아카데미 운영

: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에 대한 전문 멘토링&코칭 교육을 온/오프로 운영합니다.

### ● SeedSchool 워크북 및 매뉴얼 개발 공급(R&D)

: 중학생/초등학생/유치원생 대상으로 자기성장 워크북과 교사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 교사 모집

● 모집기간: 2010년 1월 11일 ~ 2010년 1월 31일(홈페이지 접수)

● T&T Night(씨드스쿨 설명회)

: 2010년 1월 24일(주일) 저녁에 2010 씨드스쿨 활동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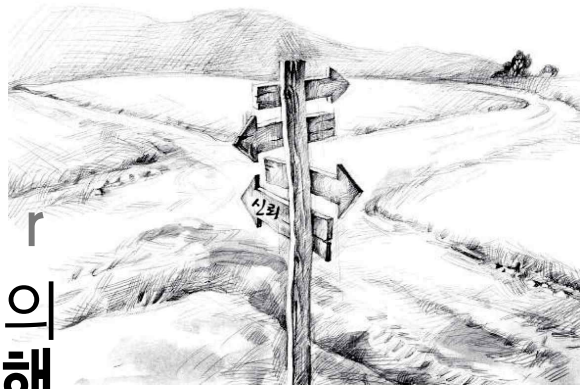
SeedSchool은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열정이 숨쉬는 즐거운 교육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eedSchool은 2009년 1월에 기독교영연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한국리더십학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빛누리재단 등 전문기관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비영리공익단체입니다.

[www.seedschool.kr](http://www.seedschool.kr)





www.trusti.kr

#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1987년 시작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TRUST INITIATIVE)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신뢰회복운동>, <교회신뢰회복운동>, <회원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 — 2009 기윤실운동의 3영역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 김동호(높은뜻교회연합 대표목사), 이동원(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이장규(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운동본부장 : 노영상(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욱(숭실대 철학과 교수), 신동식(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김은혜(숭실대 교양학부 교수), 조성돈(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황영익(서울남교회 담임목사) ◎사무총장 : 양세진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일정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뢰받는 교회 & 사회”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문의\_ 02-794-6200 / 후원계좌\_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trusti.kr](http://www.trusti.kr)**